

2016년도 부천시 경제지표 조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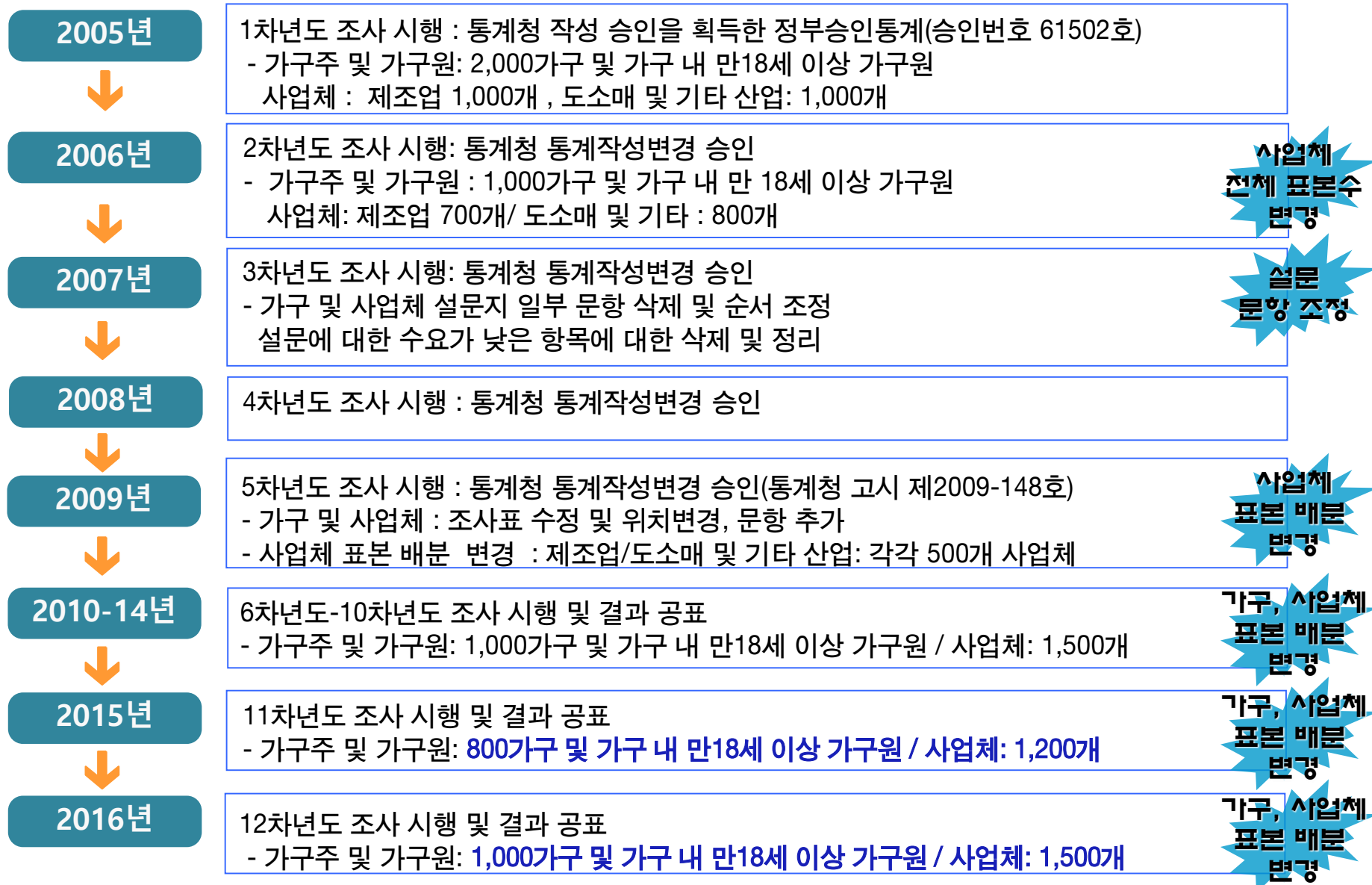
Chapter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연혁
2. 조사 구성 및 설계
3. 주요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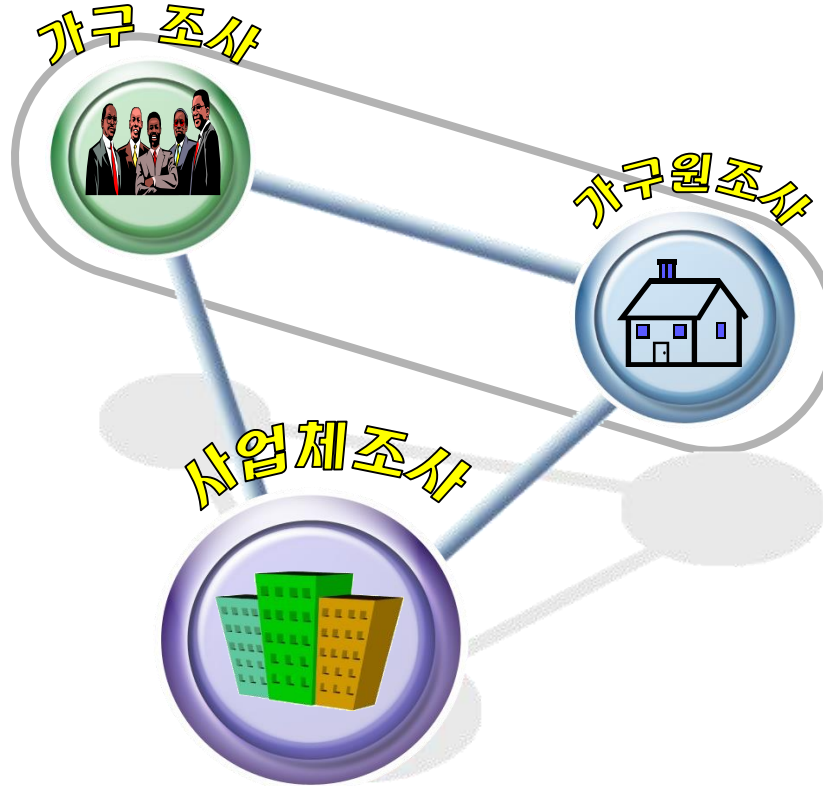


1. 조사 목적 및 연혁

- 부천시에 적합한 경제지표 및 지역경제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경제의 변화 방향 및 경제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 활용



부천시내 3개구
36개 행정동내
327,966가구를 대표하는
1,000개 표본가구



표본대상 가구내
만18세이상
가구원
2,282명

10,553개 제조업, 41,296개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기타산업을 대표하는
1,500개 표본 사업체
(제조업 : 615개, 도소매/음식숙박업 : 186개, 기타산업 : 699개)

부천시 경제 지표 조사



- 가구 현황
- 경기체감 지수
- 소득 등 경제활동 전반
- 사교육 현황
- 일상용품 및 식품 구입
- 기타



- 가구원 특성
- 경제활동 상태
- 신용카드 이용
- 부천시 이미지



- 업체 현황
- 이전 계획
- 아파트형 공장 수요
- 재무상황 및 실적
- 설비투자/연구개발
- 고용현황
- 경기체감 지수

Chapter 2. 조사 결과

1. 가구
2. 가구원
3.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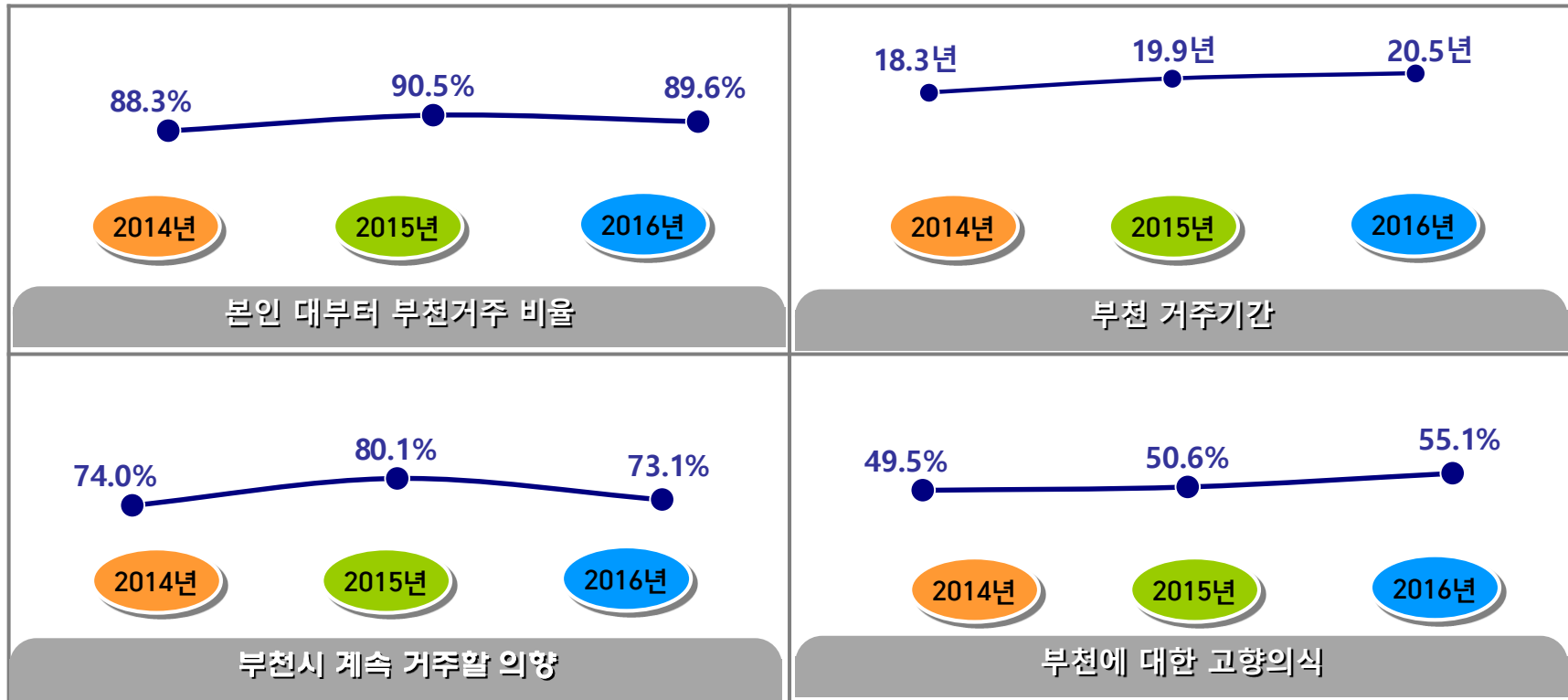
가구 부문

- 부천시내 1,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만 18세 이상 가구원은 평균 2.3명으로 나타남
상동권역의 가구당 만 18세 이상 가구원이 평균 2.5명으로 다른 권역 대비 많은 편임
- 남성 가구주 비율은 79.9%로 었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4.2세임

특성 권역	가구주	가구원수	만18세이상 가구원 수 (평균)	가구주 비율(%)		가구주 평균연령 (세)
				남성	여성	
전체	1,000	2,282	2.3	79.9	20.1	54.2
도당권역	82	185	2.3	89.8	10.2	55.7
원종권역	186	423	2.3	74.9	25.1	54.9
중동권역	150	359	2.4	81.7	18.4	51.4
상동권역	92	233	2.5	88.8	11.2	51.2
송내권역	114	266	2.3	80.3	19.7	53.8
심곡권역	162	326	2.0	80.3	19.7	57.6
소사권역	81	186	2.3	68.7	31.3	52.5
역곡권역	133	304	2.3	78.7	21.3	54.4

2. 부천 거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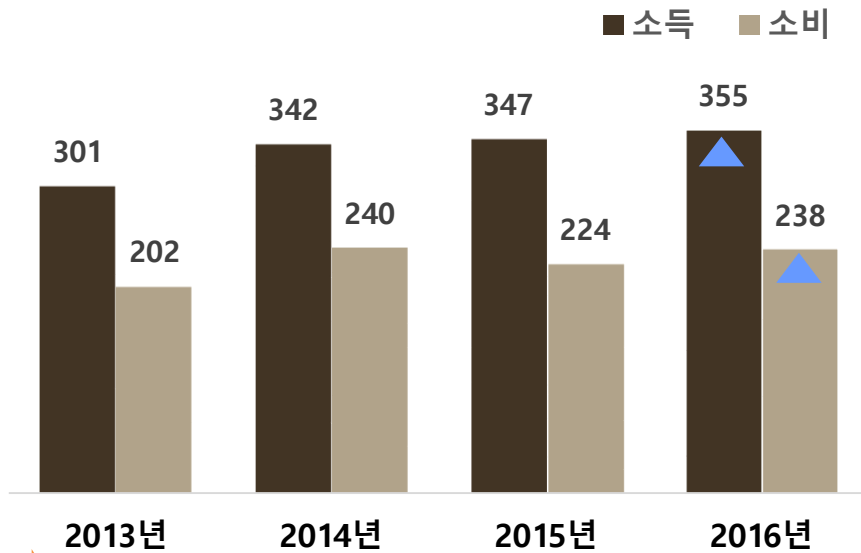
- 본인대부터 부천에 거주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천시 평균 거주기간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함
- 부천에 대한 고향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향후 계속 부천에 거주할 의향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3. 소득 및 소비수준

- 총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액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 2016년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355만원, 소비 지출 금액은 238만원 수준임
- 권역별로는 중·상동권역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편이며 소비지출 역시 중·상동권역이 다른 권역 대비 높은 수준임. 소사권역 및 심곡권역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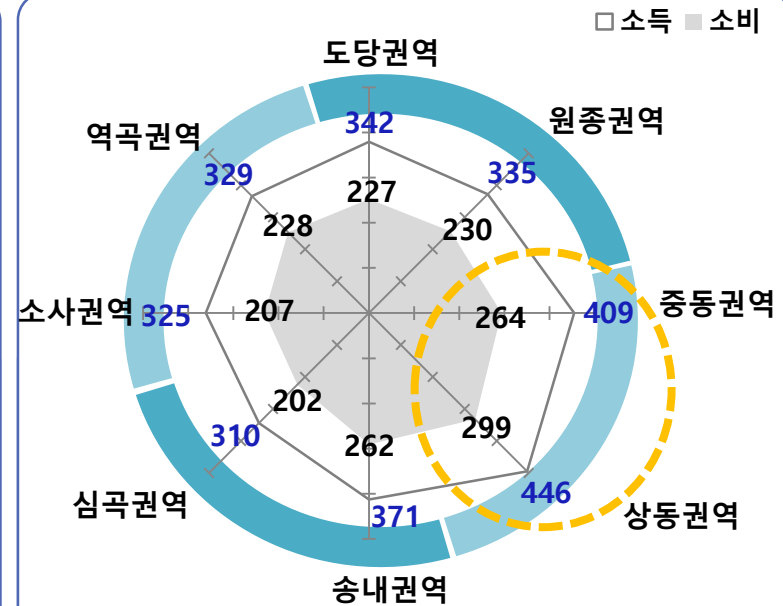
(평균: 만원)



전국평균

소득 : 363만원

지출 : 212만원



권역별 소득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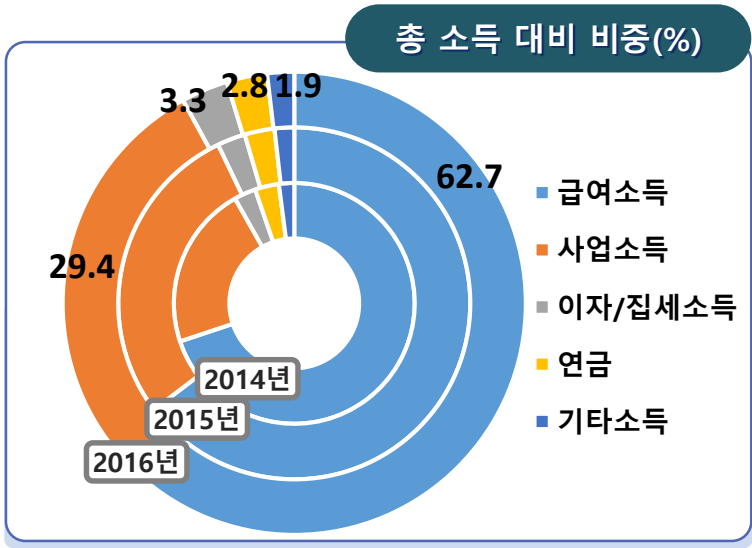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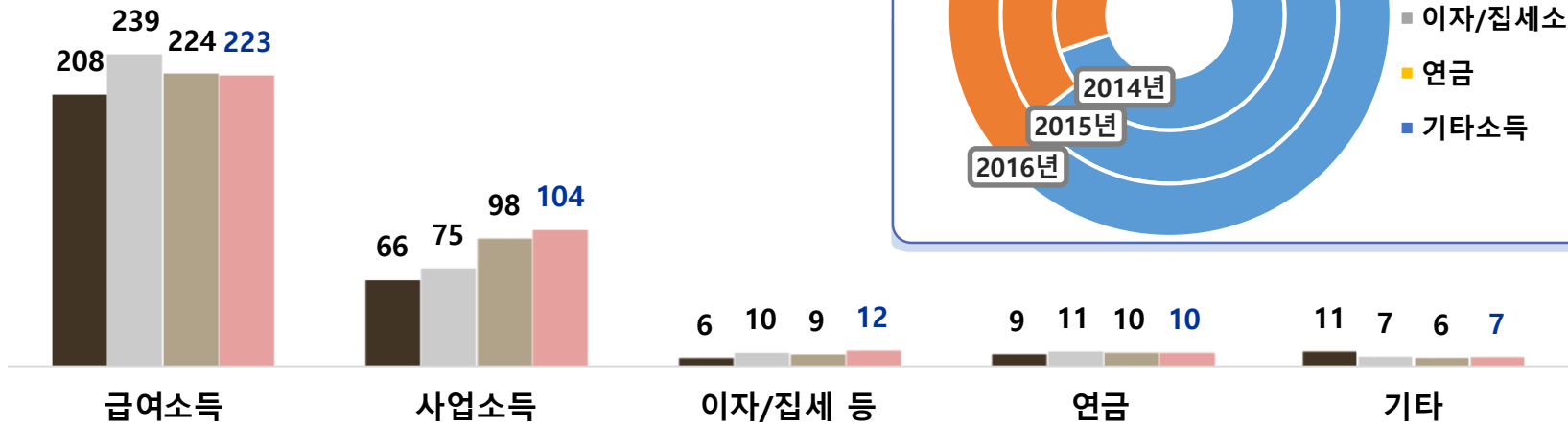
* 통계청 월평균 가계수지_1인이상_2016년 2/4분기

3-1. 소득원천별 소득액

- 가구소득의 대부분은 급여소득과 사업소득(92.1%)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소득 중 급여소득 비중이 62.7%, 사업소득 29.4%임
- 급여소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1만원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6만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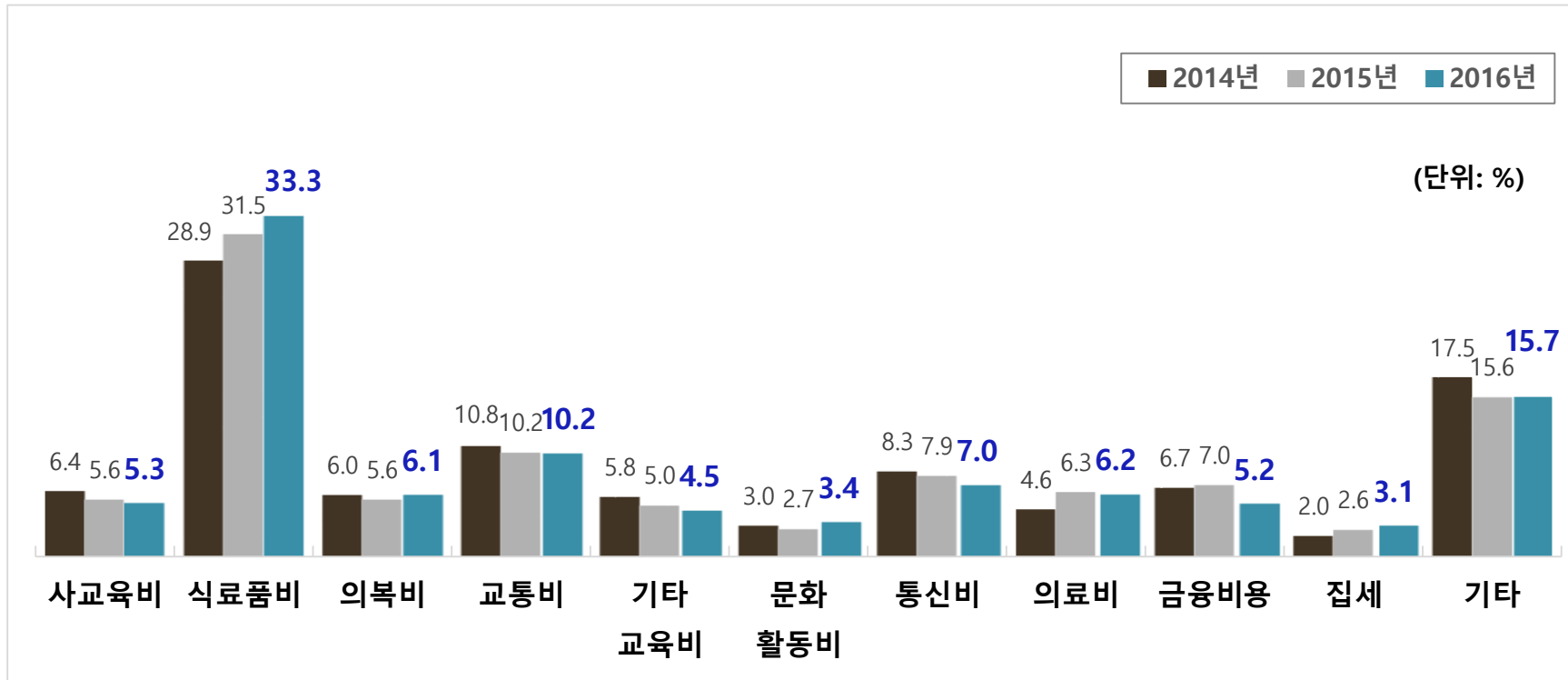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평균: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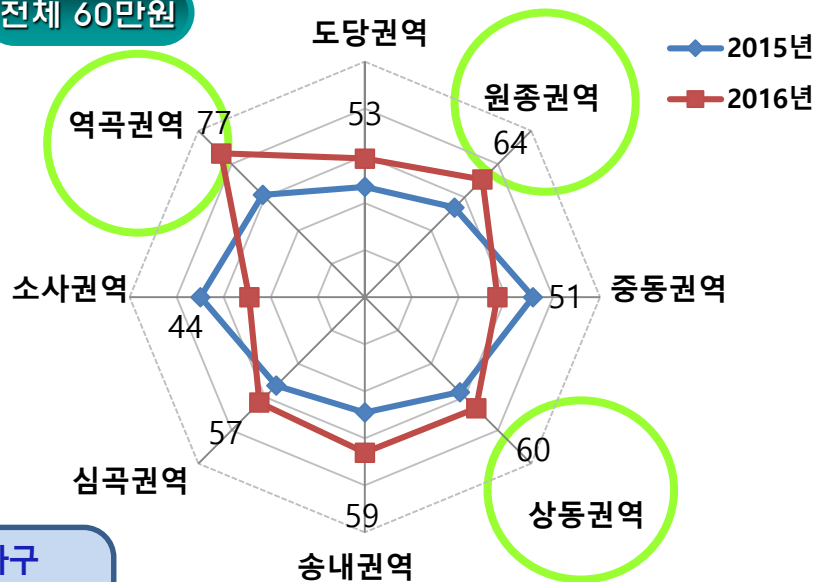
3-2. 소비지출 현황

- 소비부문별 지출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식료품비 지출이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지출금액 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5.3%로 전년도(5.6%)와 비슷한 수준이며, 의복비(5.6% → 6.1%), 문화활동비(2.7% → 3.4%), 집세(2.6% → 3.1%) 비중이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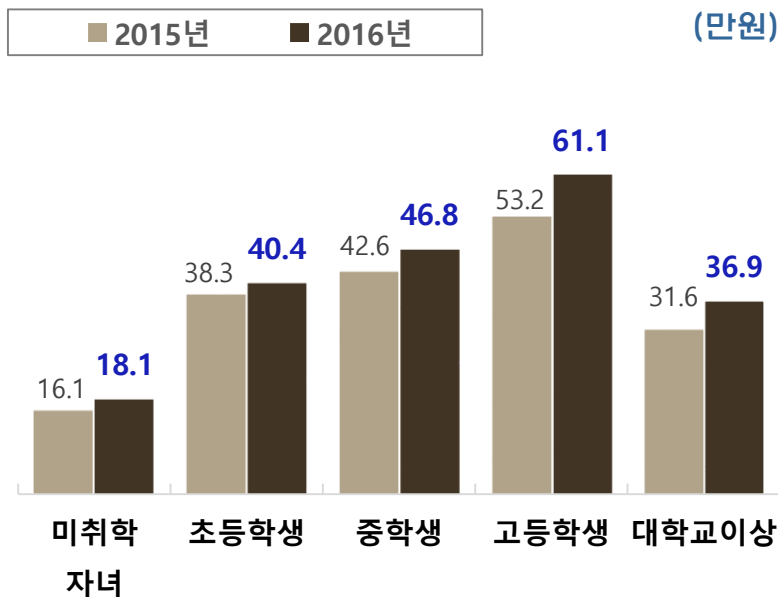
-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원으로 전년보다 7만원 가량 증가한 수준임
- 대상 자녀별로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61만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자녀 사교육비도 45만원을 넘어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상황임
- 부천시 전체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약 17만원으로, 전국 25만원보다 8만원 가량 낮은 수준임

전체 60만원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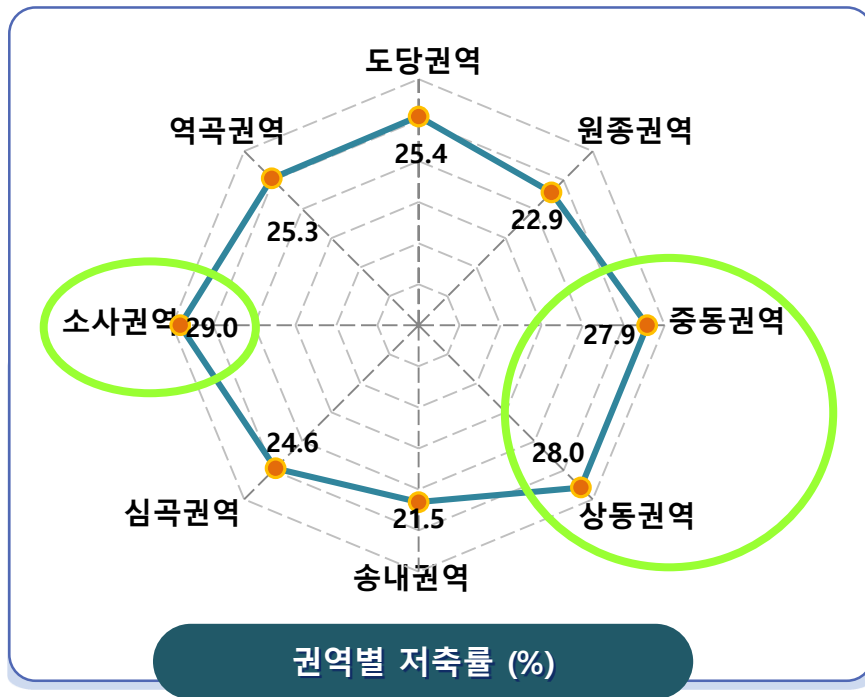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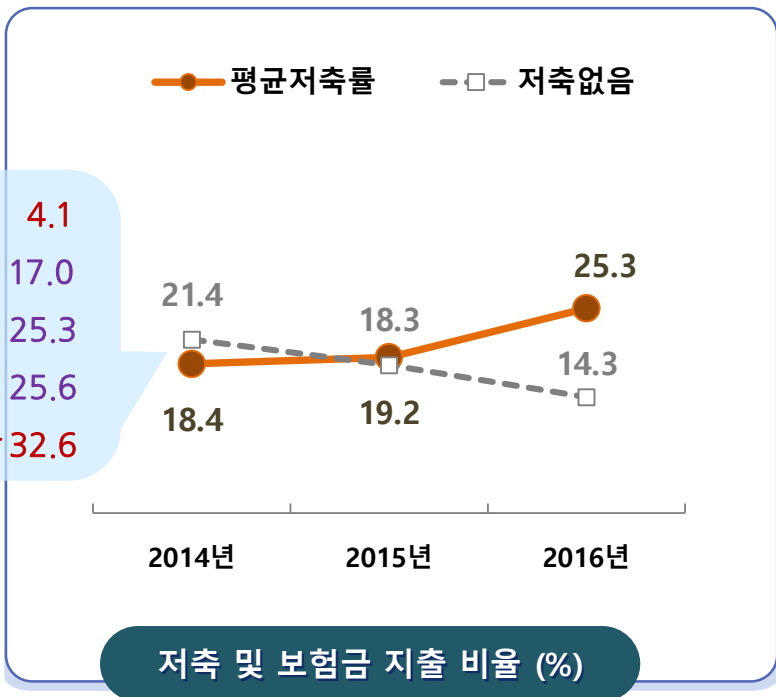
전체 가구
평균 사교육비
- 전국 : 25만원
- 부천 : 17만원



대상별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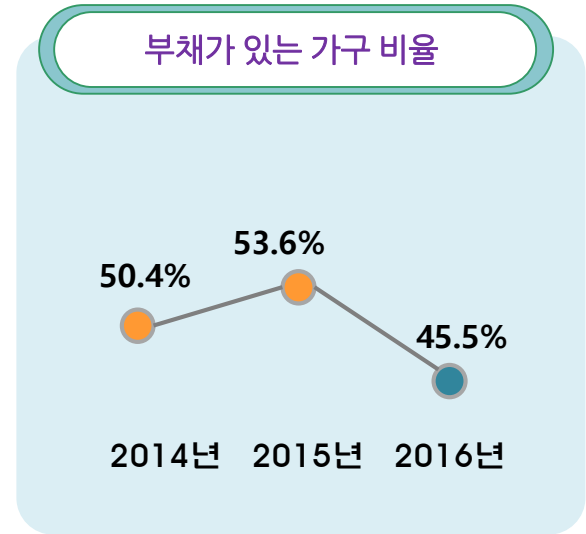
- 소득 대비 저축률은 25.3%로 전년도 대비 증가했으며,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4.3%로 전년도 대비 감소함
- 저축률은 가구소득에 비례해서 늘고 있는데,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소득의 평균 4.1% 정도를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소득의 32.6% 이상을 저축하고 있음
- 권역별로는 중상동권역, 소사권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내권역이 21.5%로 가장 낮게 나타남

100만원 미만	4.1
100-200	17.0
200-300	25.3
300-400	25.6
400만원 이상	32.6



- 가구의 부채는 평균 3,218만원 수준임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45.5%로 전년도 대비 8.1% point 가량 감소함
- 대출기관으로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채금액이 3,032만원, 개인(사채) 57만원, 카드사 33만원
으로 은행 및 금융권 비중이 전체 대출 금액의 89.4%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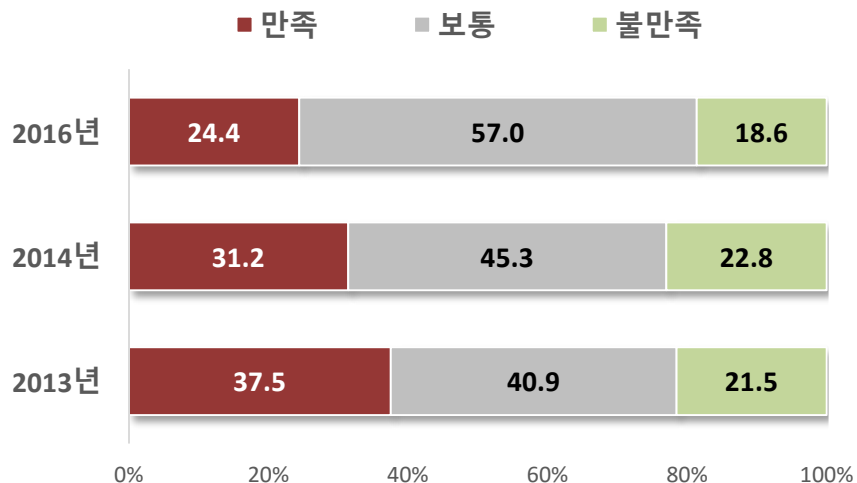
기관 \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중 (%)
전체	3,194	3,166	3,218	100.0
은행/금융기관	2,936	2,942	3,032	89.4
개인(사채)	149	97	57	3.3
카드사	50	62	33	3.9
기타	60	65	96	3.4



6. 주거환경 전반 만족도

- 2016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07점으로 2014년보다 소폭 떨어짐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24.4%가 만족, 57.0%가 보통, 18.6%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대체적으로 중·상동권역의 만족도가 높고, 심곡권역 및 도당권역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송내권역과 도당권역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만족도가 다른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점)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도

기관	년도	
	2014년	2016년
전체	3.10	3.07
도당권역	3.11	2.82
원종권역	2.82	2.98
중동권역	3.42	3.27
상동권역	3.34	3.27
송내권역	3.31	3.00
심곡권역	2.90	2.96
소사권역	2.59	3.07
역곡권역	3.29	3.19

6-1. 부분별 주거환경 만족도

- 부천시의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쇼핑시설', '주변환경'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보통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권역에 비해 중동권역과 상동권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당권역은 주거환경 만족도가 2점대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편임
-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최상위 권역과 최하위 권역간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문화시설:0.85점, 쇼핑시설 1.08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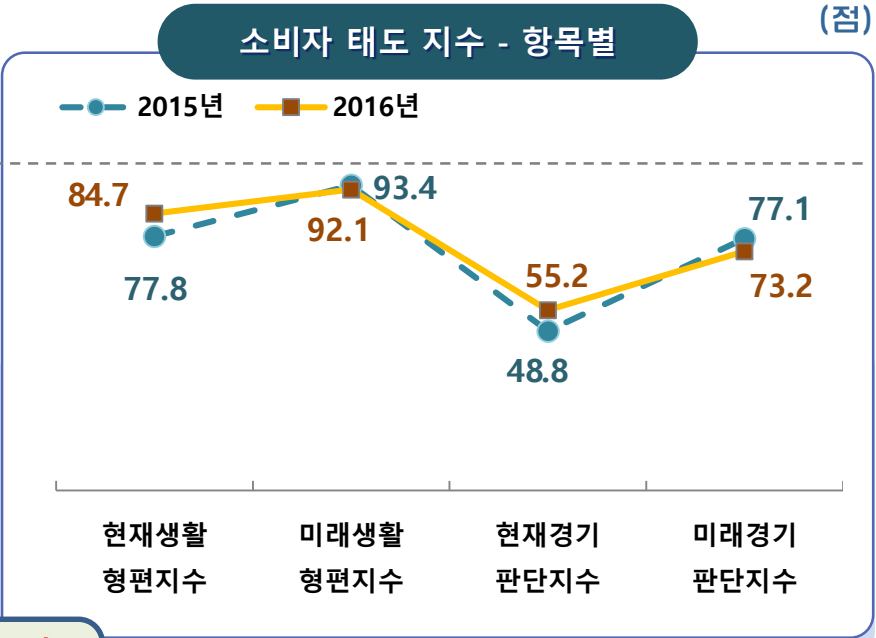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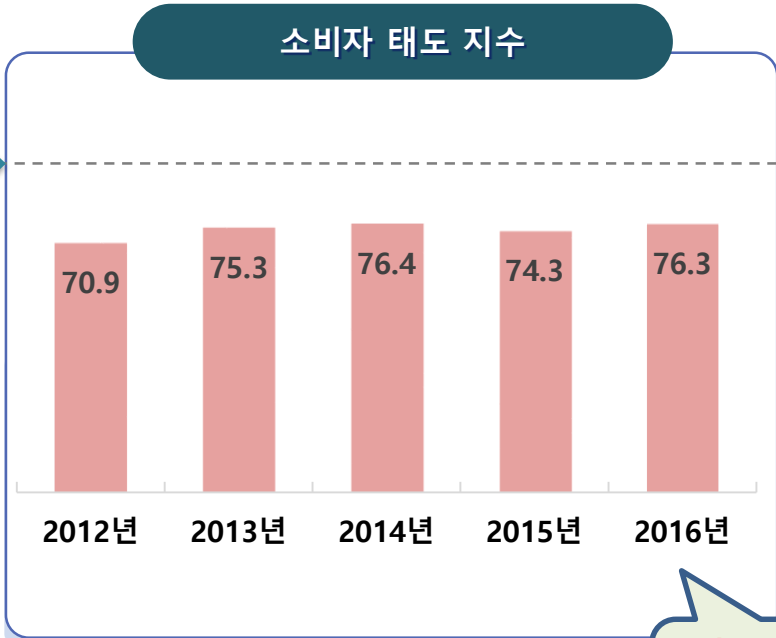
(점)

	미취학자녀 양육환경	교육환경	주차/교통	문화시설	쇼핑시설	방범/치안	주변환경
전체	2.98	2.97	2.84	2.92	3.11	2.99	3.14
도당권역	2.81	2.81	2.63	2.70	2.81	2.91	2.96
원종권역	2.93	2.79	2.89	2.72	2.75	2.97	3.27
중동권역	3.11	3.11	3.04	3.32	3.57	3.21	3.21
상동권역	3.14	3.23	3.15	3.43	3.84	2.98	3.28
송내권역	3.00	2.97	2.80	2.78	2.96	2.92	3.01
심곡권역	3.01	3.04	2.72	2.95	3.27	2.97	2.98
소사권역	2.86	2.92	2.72	2.95	2.97	3.03	3.32
역곡권역	2.92	2.92	2.74	2.57	2.78	2.90	3.05

상대적으로 만족도 낮은 지역
 상대적으로 만족도 높은 지역

7.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 태도지수

- 가정경제와 국내 경기수준에 대한 체감지수를 측정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100기준에 76.3으로 여전히 가정 및 국내 경기침체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정경제를 판단하는 현재생활 형편지수는 84.7점, 국내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는 55.2로 나타나 실제 개인 및 가구의 상황보다 나라 경기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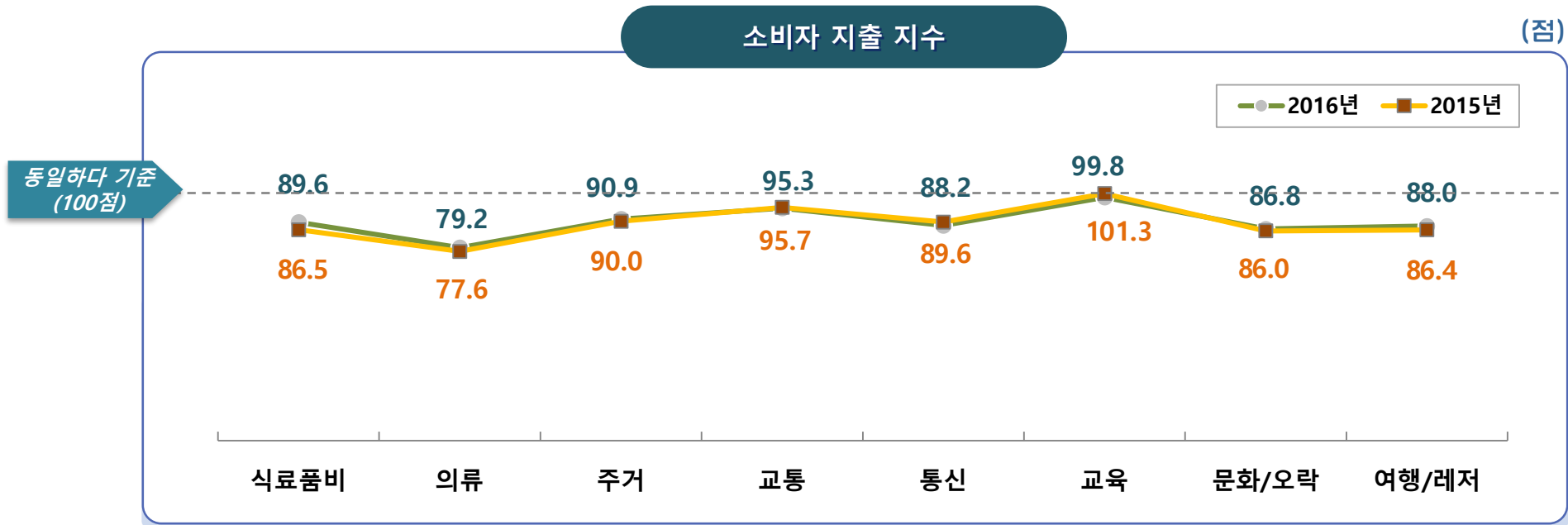


※ 전국/경기_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016.7 기준)
 서울_서울연구원 소비자태도지수 (2016.3/4분기)

**전국 84.3점,
 경기 84.5점,
 서울 84.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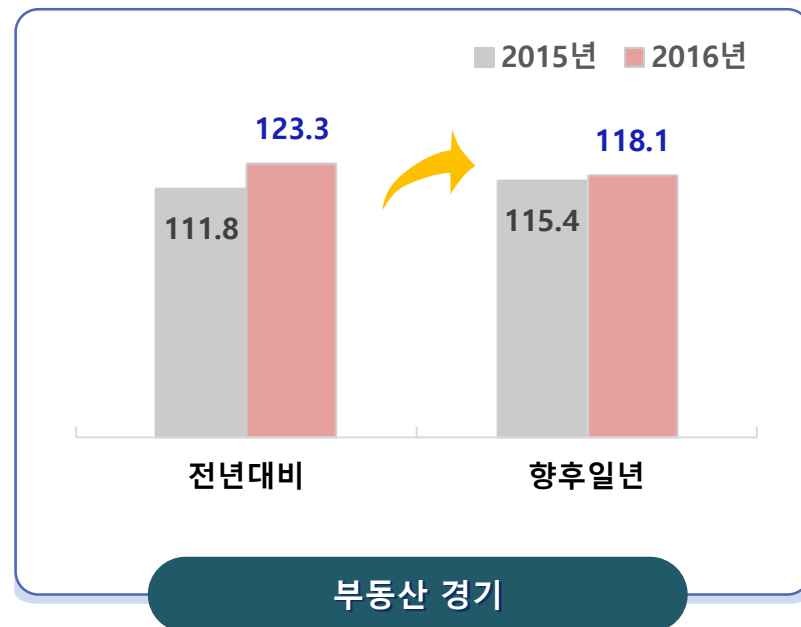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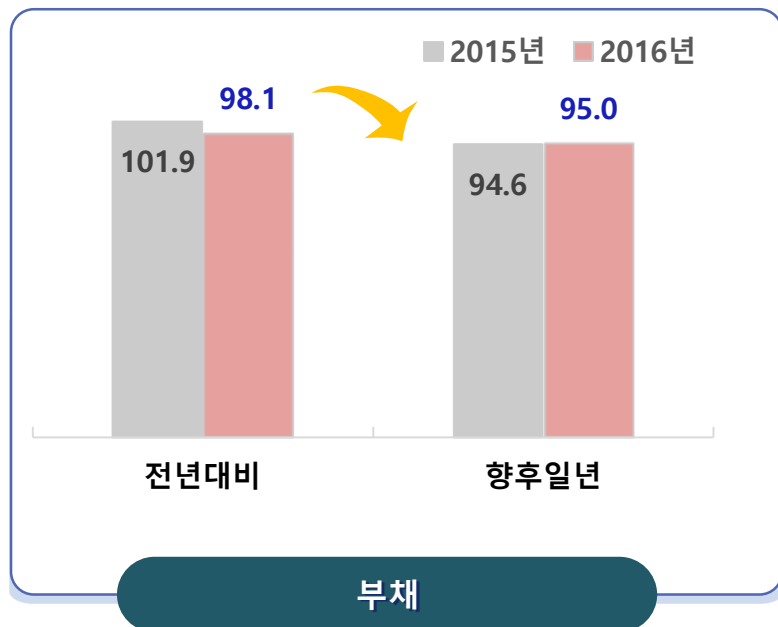
7-1. 경기체감지수 - 미래 소비 지출 지수

- 2016년 항목별 미래 소비 지출 지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동일'기준을 밑돌아 전반적인 소비지출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음
-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문화/오락, 여행/레저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
미래 소비 지출 상승률은 '식료품' > '여행/레저' > '의류' > '주거' > '문화/오락'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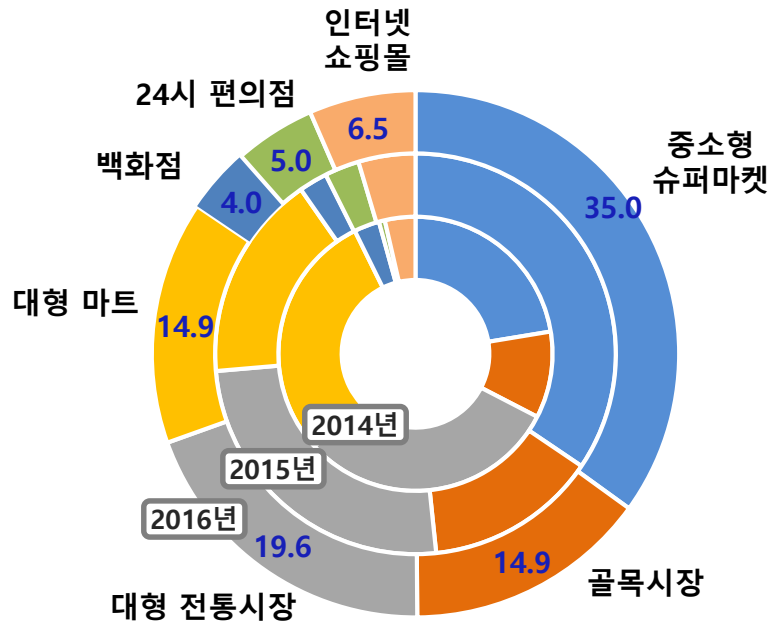
7-2. 경기체감지수 - 부채 및 부동산 경기

- 전년대비 가계 부채 지수는 98.1점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며, 향후 일년 가계 부채 지수는 95.0점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전년대비 부동산 경기 지수는 123.3점, 향후 일년 부동산 경기 지수는 118.1점으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는 점점 회복될 것으로 전망



8. 일상용품 구입장소별 비중

- 일상용품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장소로 중소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3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형전통시장(19.6%) > 대형마트 및 동네골목시장(14.9%) 순임
- 전년도 대비 중소형 슈퍼마켓, 동네골목시장, 백화점, 24시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대형전통시장, 대형마트 이용 비중은 감소



	구입장소별 비중 (%)					
	대형 전통시장 ▼	대형마트 ▼	중소형 슈퍼마켓 ▲	대형 전통시장 ▼	대형마트 ▼	중소형 슈퍼마켓 ▲
전체	25.3 ('15)	19.6 ('16)	34.5 ('15)	16.7 ('15)	14.9 ('16)	35.0 ('16)
도당권역	16.1	18.2 ↑	50.0	13.6	9.7	41.7 ↓
원종권역	25.3	18.4	38.2	10.8	10.6	44.6 ↑
중동권역	17.9	15.0	31.0	28.6	23.4 ↓	33.3
상동권역	15.0	9.8	39.1	22.4	24.1 ↑	37.1
송내권역	34.6	24.4 ↓	32.0	13.5	14.2	26.7
심곡권역	27.8	27.5	36.3	17.6	13.8	31.9
소사권역	20.2	16.6	27.5	13.7	12.4	34.5
역곡권역	38.5	22.5	24.5	13.0	11.9	28.9

9. 의료/문화/소비 이용 부천 의존률

- 의료기관의 경우 부천 의존률이 소폭 줄어들었으나, 문화활동 및 백화점 이용의 경우 부천 의존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부천 의존률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역곡권역에서 의료기관, 문화활동 등 서울 의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년도 \ 구분	의료기관			문화활동			백화점		
	부천	서울	기타	부천	서울	기타	부천	서울	기타
2016년	81.9 ▼	13.8 ▲	4.3	78.6 ▲	16.2 ▼	5.2	81.5 ▲	13.2 ▼	5.3
2014년	85.4	12.0	2.6	75.4	20.4	4.2	78.3	18.6	3.1
2013년	88.3	9.9	1.8	77.0	17.7	5.3	83.8	14.0	2.2
2012년	85.3	13.5	1.0	73.6	17.6	8.7	82.2	14.8	3.0



가구원 부문

1. 경제활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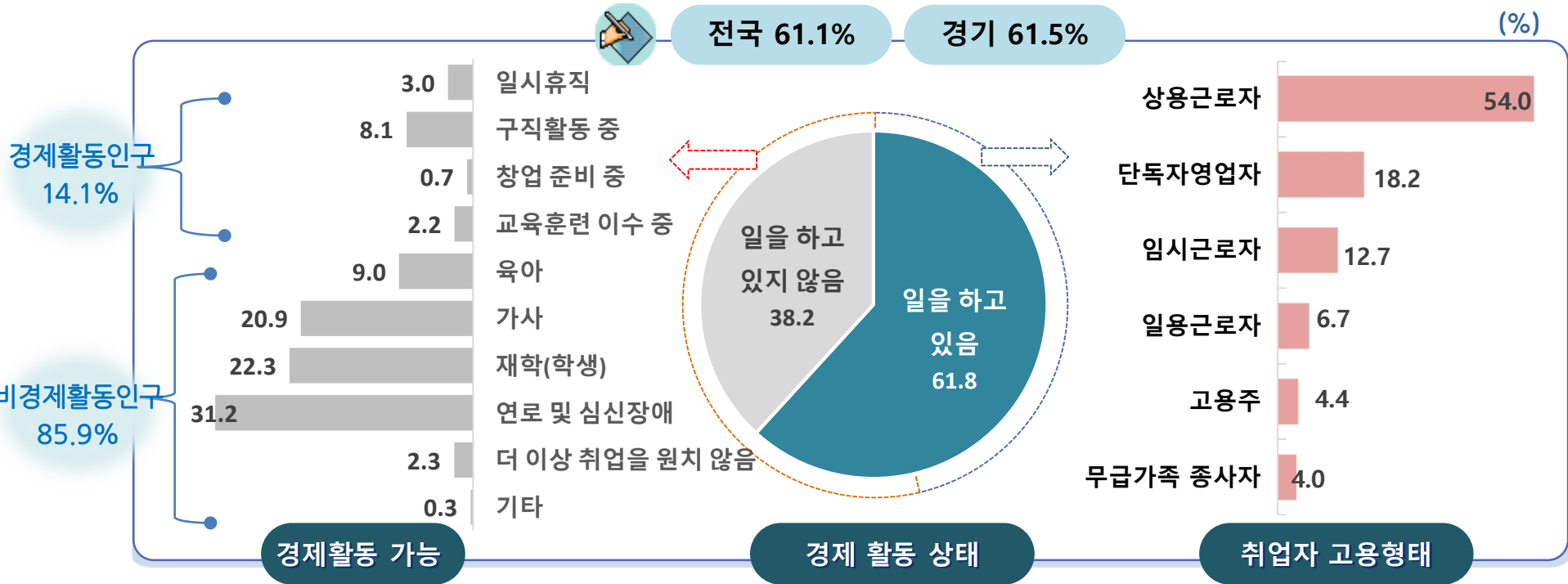
- 전체 가구원 중 61.8%는 취업자이며 38.2%는 비취업자임
비취업자 중 85.9%는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임
- 취업자 중 54.0%가 상용근로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단독자영업자(18.2%) > 임시근로자(12.7%)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고용률(2016.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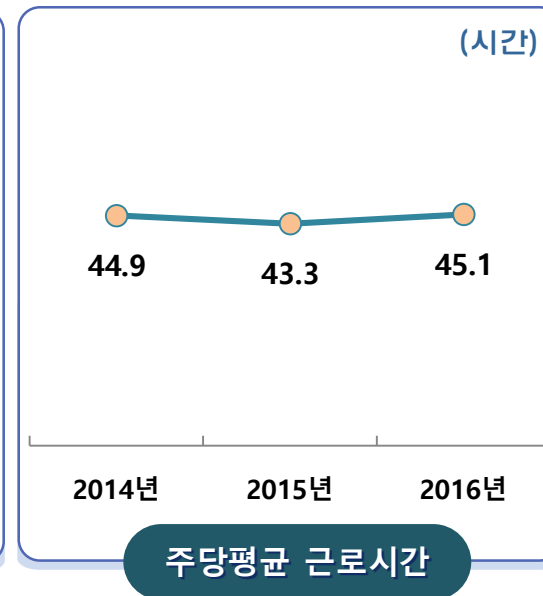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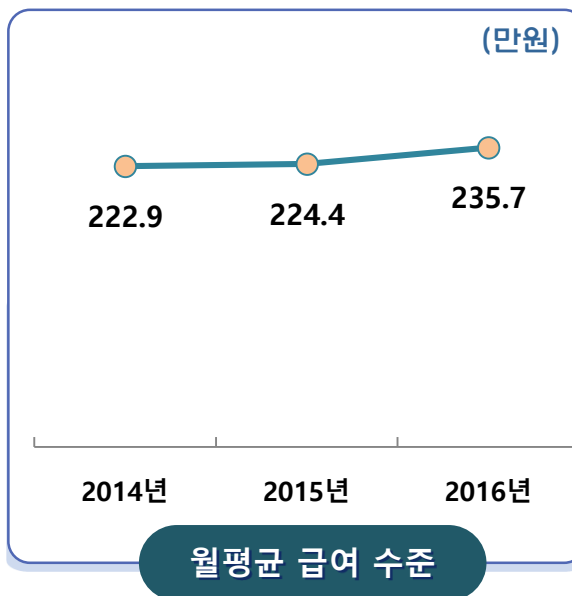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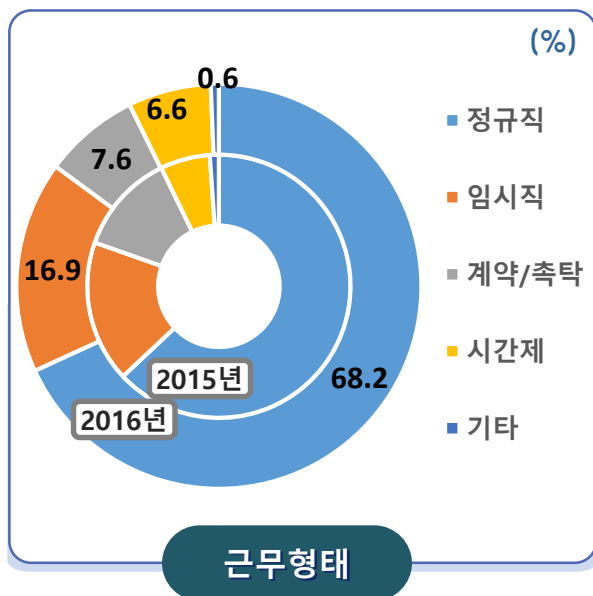
전국 61.1%

경기 6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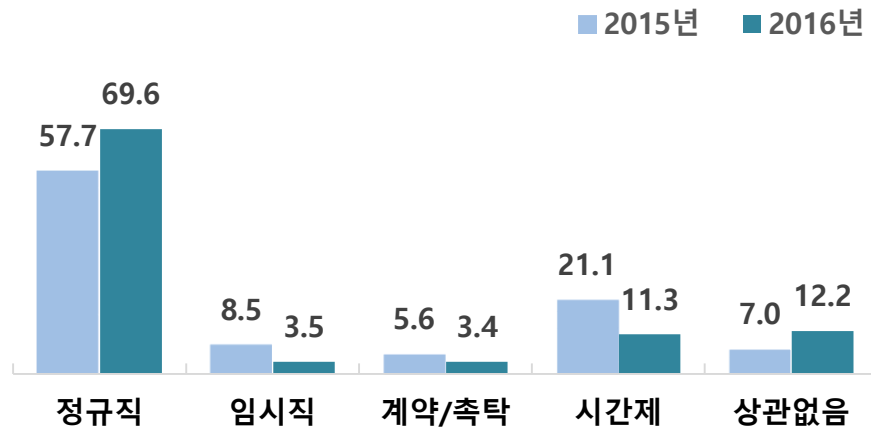
- 가구원의 고용형태는 68.2%가 정규직이며, 임시직 16.9%, 계약/축탁직 7.6% 순임. 정규직 형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월평균 급여 수준은 평균 235.7만원으로 전년대비 11.3만원 상승함
-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까지 감소 추세이다가, 2016년 45.1시간으로 전년대비 1.8시간 증가함



3. 비취업자 구직활동

- 구직자의 희망 근무형태는 69.6%가 정규직을 희망하고 있어 전년의 57.7%보다 높게 나타나, 보다 점점 안정적인 근무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 근무지는 대다수(81.8%)가 거주지인 부천지역을 선호하고 있음

희망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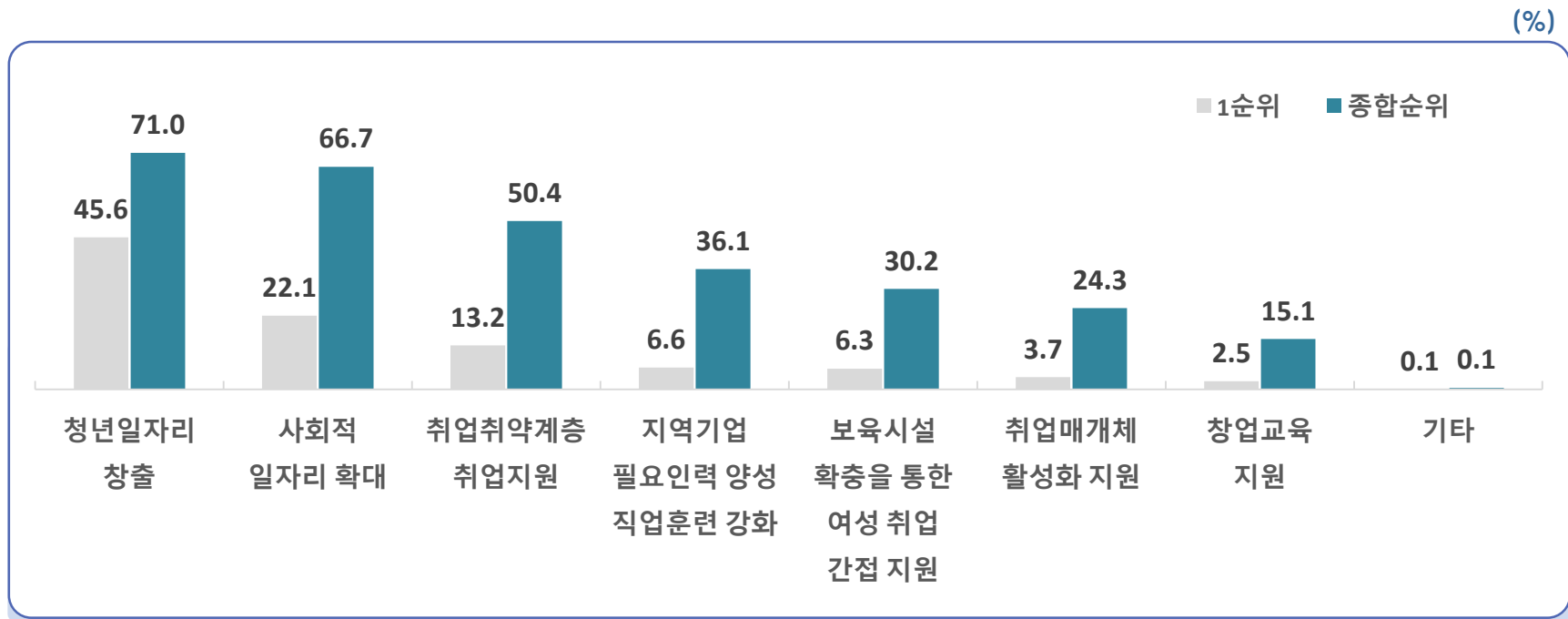
희망 소재지

(%)

희망 소재지		부천	서울	인천
전체		81.8	2.5	15.8
학력별	중졸이하	83.3	16.7	0.0
	고졸	91.9	0.0	8.1
	대졸이상	74.4	2.8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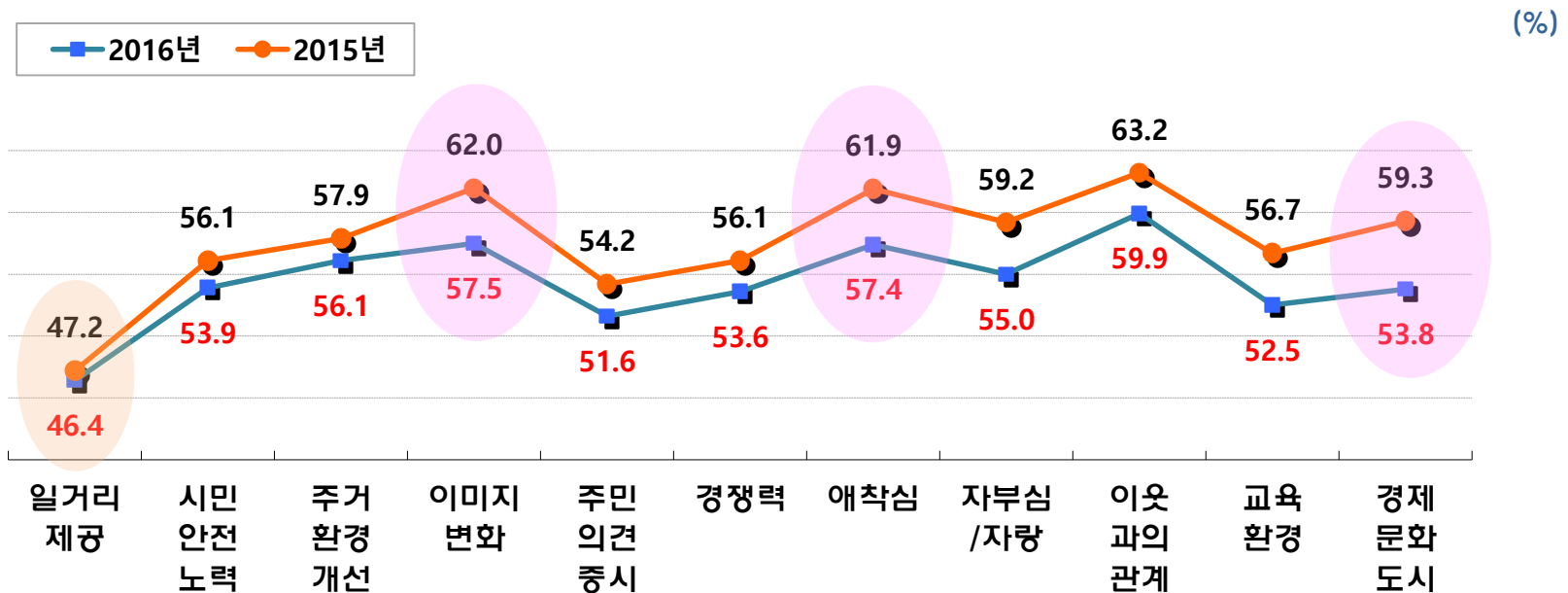
4. 일자리 창출 관련 우선 추진 부문

-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천시가 추진해야 항목으로 종합순위(1순위+2순위+3순위) 기준 '청년일자리 창출'이 1순위로 꼽힘(71.0%)
-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66.7%)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50.4%) > '지역기업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36.1%) 등의 순임



5. 부천 이미지

- 각각 이미지에 대한 평가 점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였음
특히 '경제문화도시' 부분은 가장 많이 하락하여 전년대비 5.5점 하락하였고, '애착심' 4.5점, '이미지 변화' 4.4점 하락하였음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거리제공' 부분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자리 제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업체 부문

1.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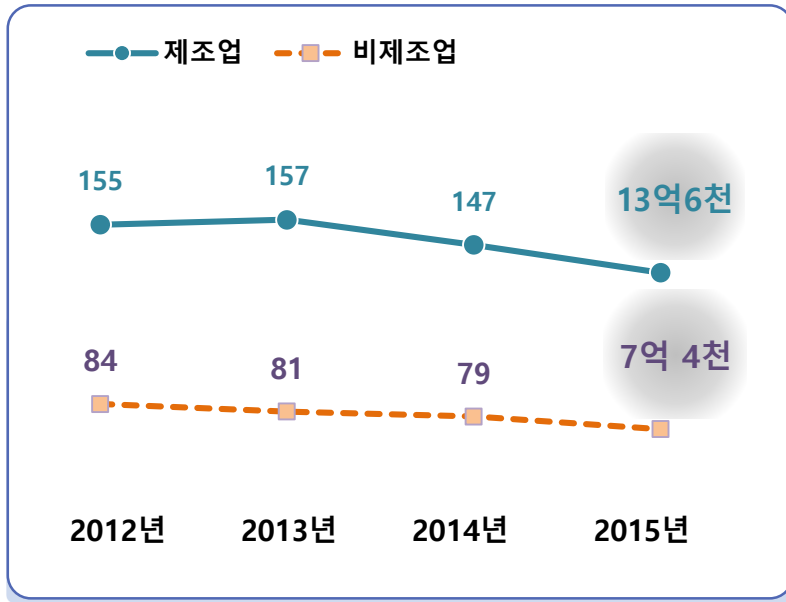
- 제조업체는 전체 10,553개가 있으며, 도소매 및 기타산업의 경우 41,296개(조사모집단 기준)로 나타남
- 4명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있음
- 도소매 및 기타산업의 경우 1인 자영업자 비율은 34.8%, 5인 미만 전체는 81.8%로 대부분의 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50인 이상 업체는 293개에 불과함

특성 규모	제조업		비제조업 (도소매/기타)	
	사업체수(개)	비율(%)	사업체수(개)	비율(%)
전체	10,553	100.0	41,296	100.0
1인(자영업)	-	-	14,376	34.8
4인 이하	6,450	61.1	19,394	47.0
5-9인	2,174	20.6	4,870	11.8
10-19인	1,212	11.5	2,080	5.0
20-49인	545	5.2	283	0.7
50인 이상	173	1.6	293	0.7

2. 매출 부문 - 매출액

- 매출액은 2015년 대비 제조업은 1억 가량 감소하였으며, 주로 50인 미만의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 매출액 감소
- 제조업의 경우 2015년 기준 평균 매출이 13억 6천만원 가량이며, 비제조업의 경우 전년 7억 9천만원에서 7억 4천만원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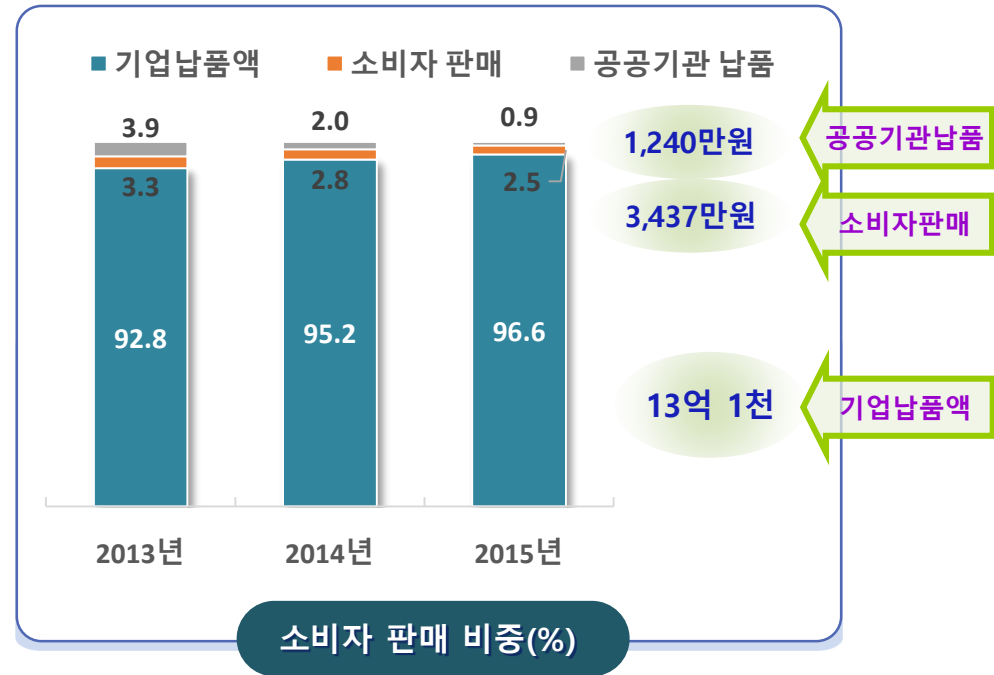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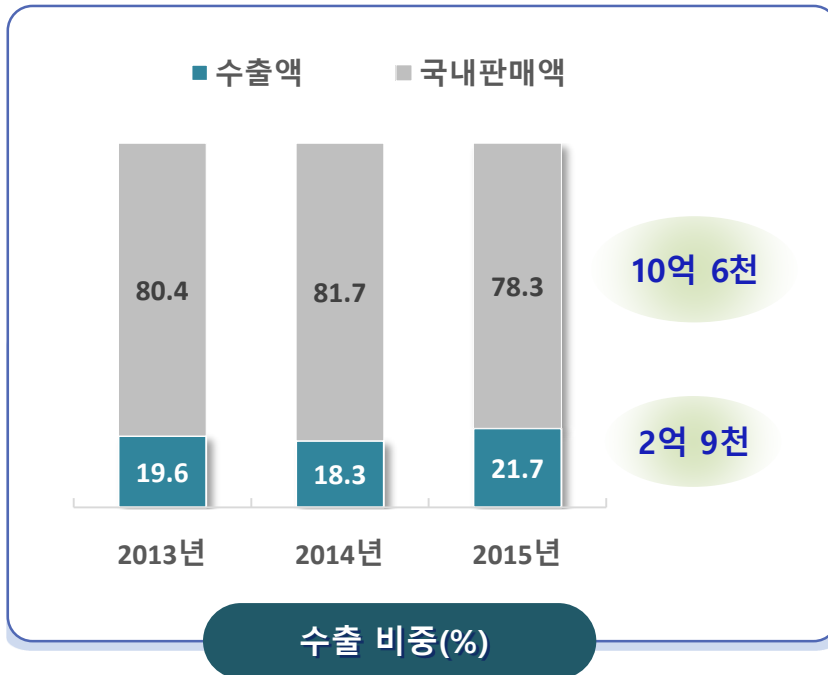
(단위:천만원)



특성	제조업 매출액 (만원)	특성	비제조업 매출액 (만원)
규모		규모	
평균	136,060	평균	73,936
1~4인	24,122	1인 자영업	7,225
5~19인	134,229	2~4인	25,464
20~49인	588,664	5~9인	120,755
50~99인	1,912,602	10~29인	342,436
100인 이상	7,979,956	30~49인	1,048,908
		50인 이상	2,657,199

2. 매출 부문 - 수출 비중 및 소비자 판매 비중(제조업)

- 올해 판매 비중은 국내 78.3%, 수출 21.7%로 나타나, 전년대비 수출 비중이 소폭 증가함
- 매출의 96% 이상이 기업 납품이며, 기업 납품 비중은 증가 추세임. 소비자 판매 비중은 2.5%임. 공공기관 납품 비중은 2.0%에서 0.9%로 소폭 감소함



3. 투자 부문 - 설비투자실적(제조업)

- 설비투자는 평균 4,238만원으로 전년도 5,433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계장치 투자액은 4,189만원으로 전체 투자의 98.8%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장치 투자액 중에서도 신규투자액이 1,91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지보수액 349만원, 교체(갱신) 투자액 1,9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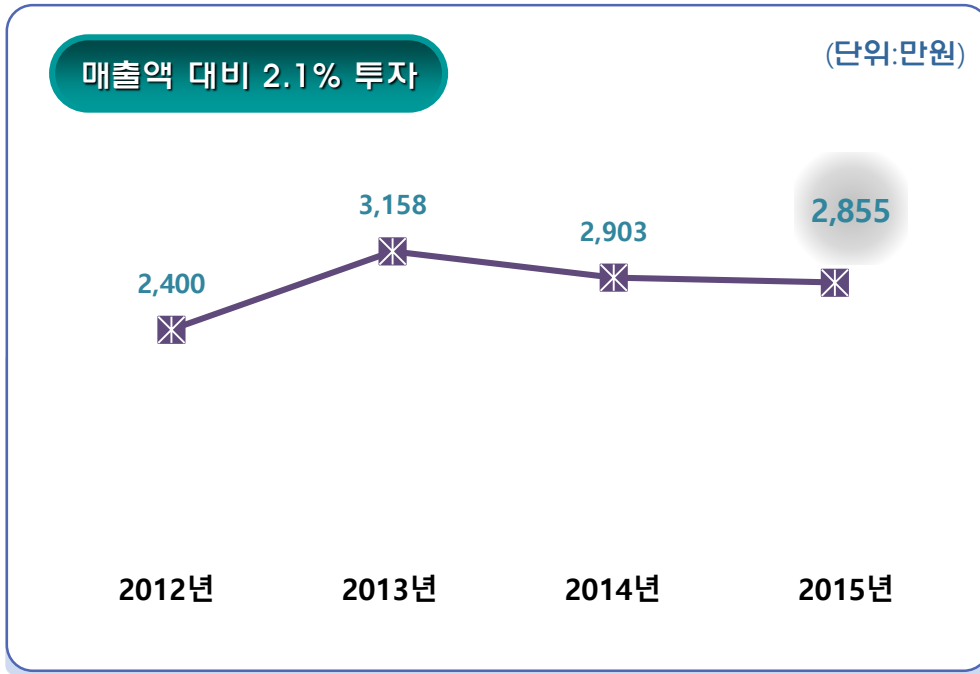
전체 투자액의
98.8%

(단위:만원)

	설비투자총액				
	기계장치 투자액			유지 보수액	교체(갱신)액
전체	4,238	4,189	349	1,930	1,910
4인 이하	987	970	113	246	611
5-19인 이하	3,724	3,700	536	771	2,394
20-49인 이하	13,508	12,943	713	4,467	7,763
50-99인 이하	46,460	46,312	2,214	25,900	18,198
100인 이상	390,707	390,707	14,411	332,749	43,548

3. 투자 부문 - 연구개발투자(제조업)

- 2015년 연구개발 투자액은 평균 2,855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은 2.1%수준으로 전년도 2.0%와 비슷한 수준임. 20-49인 이하 제조업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전년도 2.0%에서 4.7%로 2.7%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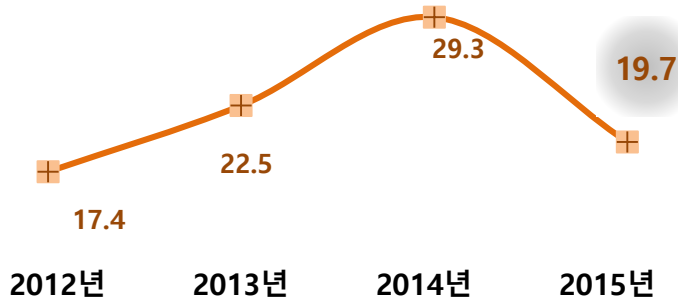


업종 규모	연구개발투자	
	투자 금액 (만원)	매출액 대비 비중(%)
전체	2,855	2.1
4인 이하	301	1.2 ↓
5-19인 이하	1,243	0.9 ↓
20-49인 이하	27,397	4.7 ↑
50-99인 이하	23,716	1.2 ↓
100인 이상	187,727	2.4 ↑

3. 투자 부문 - 광고판촉비(비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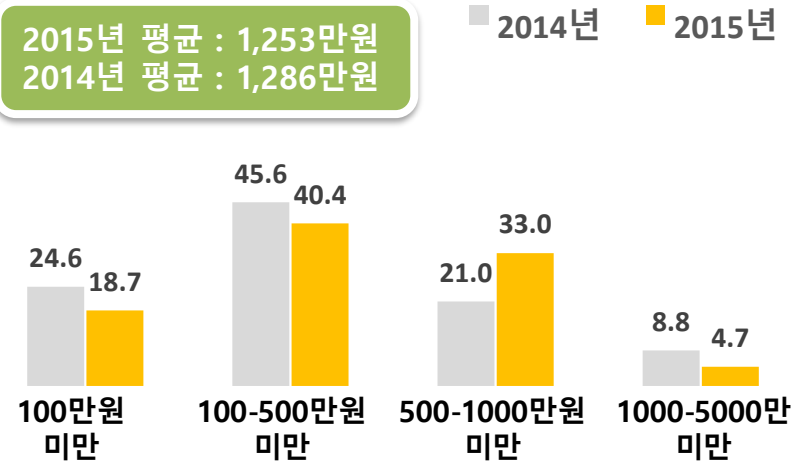
- 전체 사업체 중 광고판촉비를 지출한 사업체 비중은 2014년 29.3%에서 2015년 19.7%로 약 10%p 감소함
- 광고판촉비 지출액은 2014년 1,286만원에서 2015년 1,253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광고판촉비 지출 회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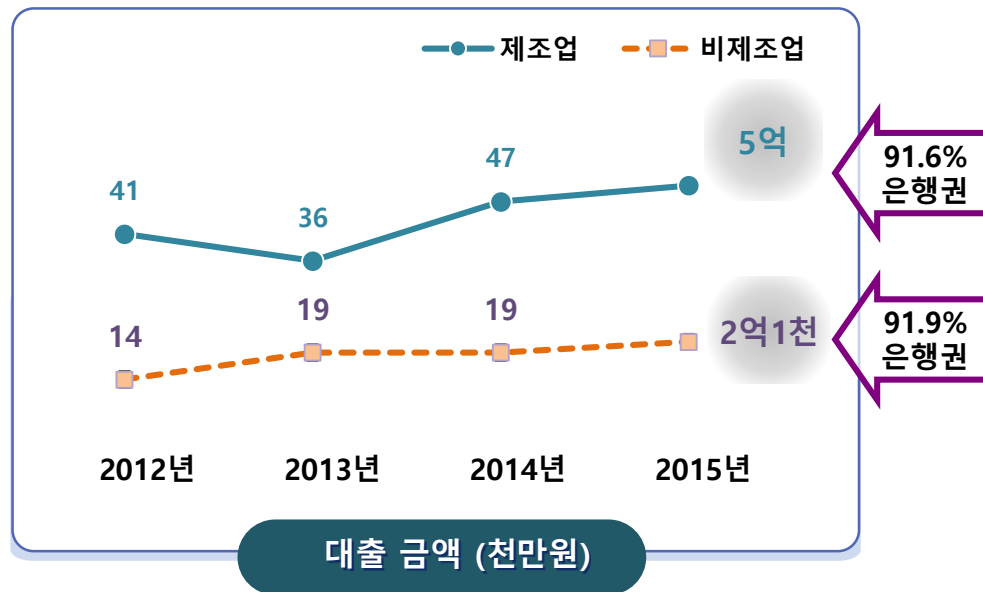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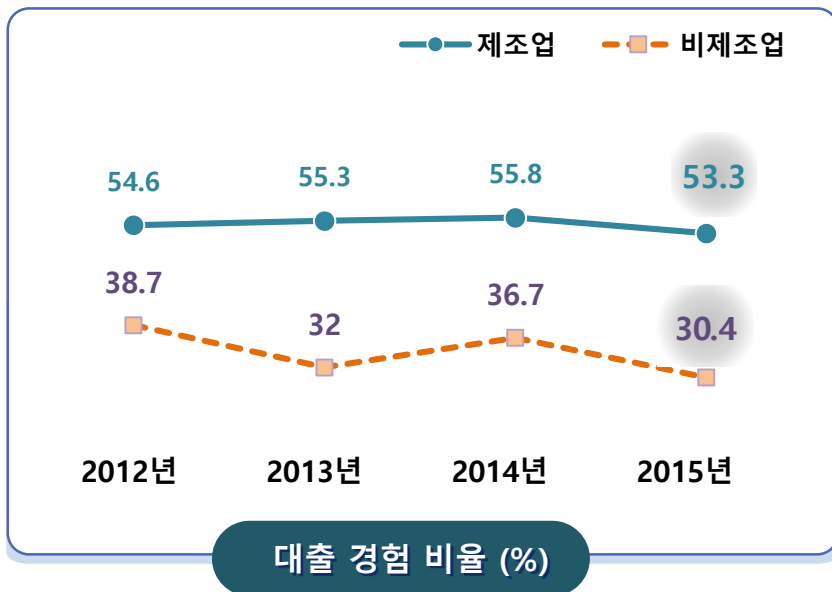
광고판촉비 지출액 (%)

2015년 평균 : 1,253만원
2014년 평균 : 1,286만원



4. 대출

- 제조업의 경우 대출 기업이 53.3%로 전년(55.3%)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며, 비제조업의 경우 대출 경험이 있는 기업이 30.4%로 전년대비 6.3%p 감소함
- 제조업의 평균 대출금액은 5억원으로 은행권 대출 비중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함. 제조업의 경우 대출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함
- 비제조업의 경우 대출금액은 평균 2억1천만원으로 91.9%가량이 은행권 대출이며 전체 대출 규모는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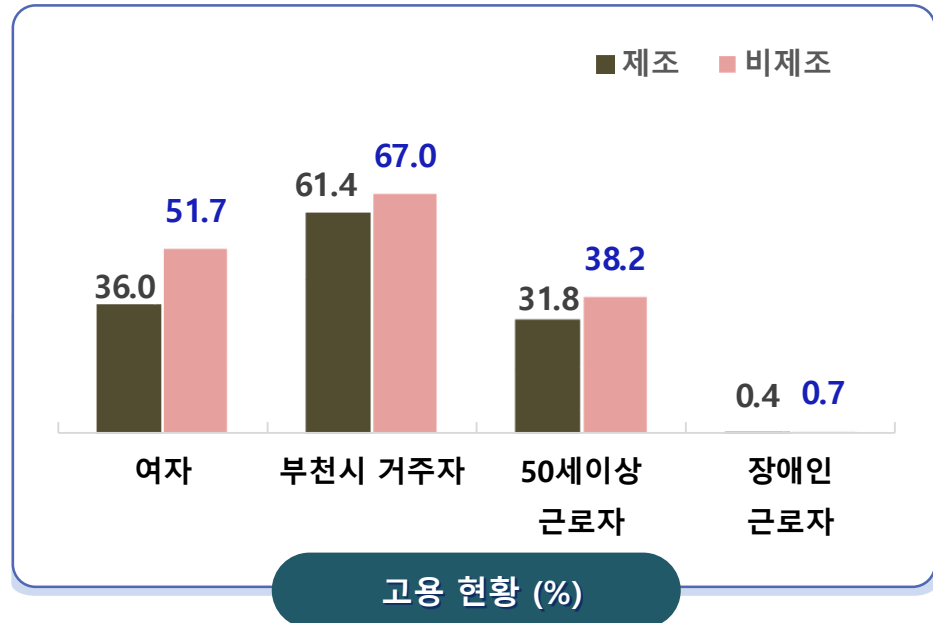


5. 고용 부문 - 종사자 현황

- 제조업, 비제조업 총 종사자수는 261,299명이며 이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28.8%인 75,139명으로 나타남
- 제조업체 여성 비율은 36.0%, 비제조업은 51.7%로 비제조업의 여성 비율이 높음
- 부천시 지역 거주자 비율은 제조업 61.4%, 비제조업 67.0%임

(단위:명)

제조업(명)	제조	비제조
전체종사자 수	75,139	186,160
남성종사자 수	48,100	89,892
여성종사자 수	27,039	96,268
부천시 거주자	46,128	124,644
중고령자(50세이상)	23,866	71,059
장애인	321	1336



5. 고용 부문 - 종사자 현황

- 제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4,560명 수준, 가장 많은 인력은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 임시직 비중은 제조업 전체 비정규직의 32.3%에 이룸
- 비제조업의 경우 비정규직 인력 규모는 34,355명이고,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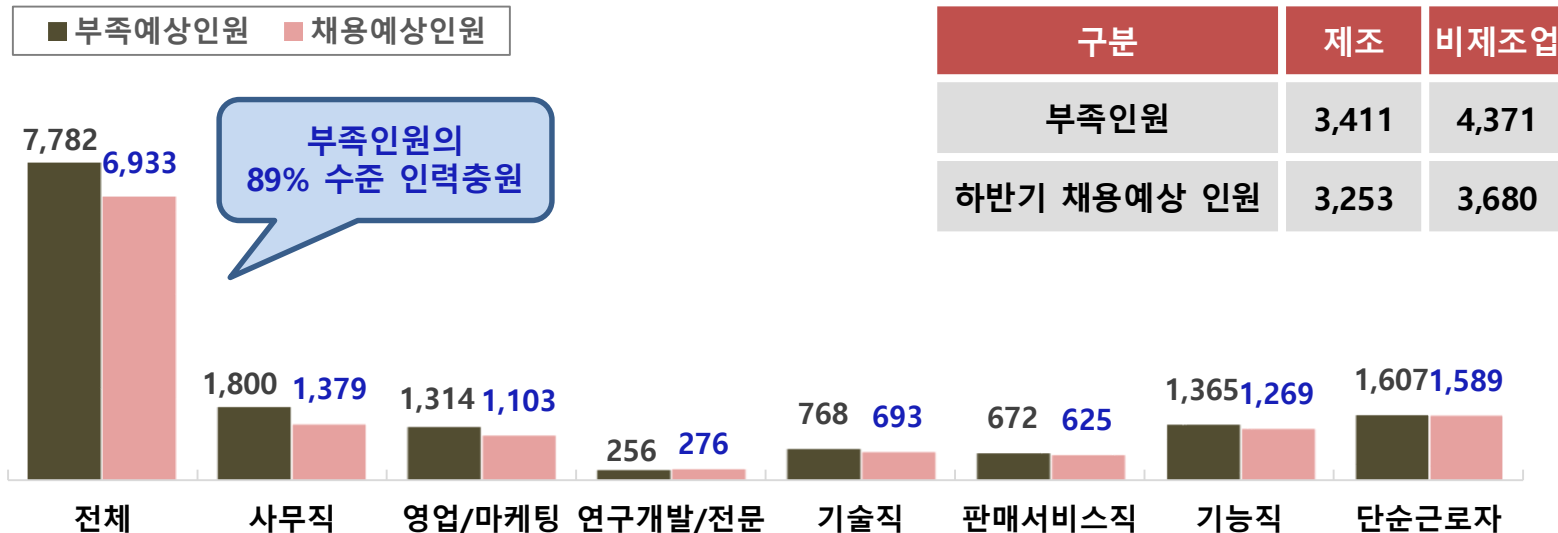
(단위:명)

희망 소재지		산업기능 요원	외국인 근로자	임시직	일용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계
제조업	인원(명)	107	60	1,473	870	950	458	642	4,560
	인원(비율 %)	2.3	1.3	32.3	19.1	20.8	10.0	14.1	
비제조업	인원(명)	—	472	15,288	5,918	12,429	248	—	34,355
	인원(비율 %)	—	1.4	44.5	17.2	36.2	0.7	—	

5. 고용 부문 - 인력부족

- 제조업의 경우 부족인원은 3,411명, 비제조업의 경우 4,371명임. 제조업의 경우 현재 부족 인력의 95.4%수준에서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됨
- 비제조업 부족인원은 4,371명이며, 하반기 채용예상인원은 3,680명으로 84.2% 수준에서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됨
- 직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단순근로자', 비제조업에서는 '사무직'에 대한 부족인력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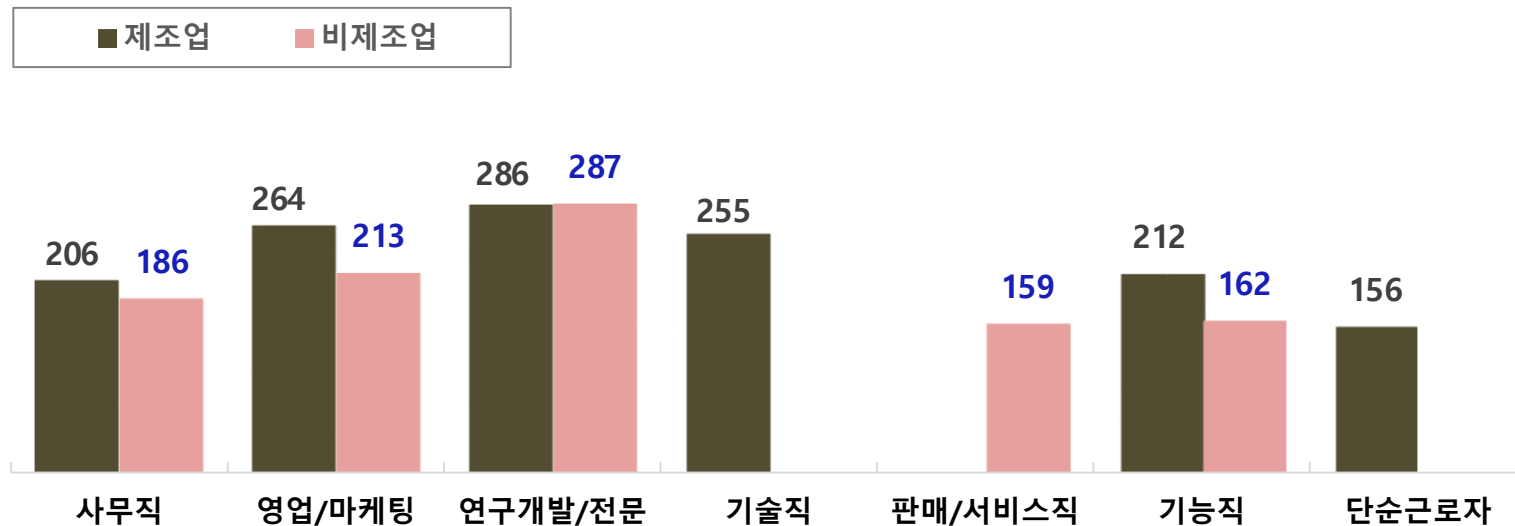
(단위:명)



5. 고용 부문 - 임금수준

-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연구개발 직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연구개발 직은 임금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사무직의 경우 제조업은 206만원, 비제조업은 18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마케팅 인력은 제조업이 264만원, 비제조업은 213만원으로 나타남
- 기술인력은 제조업이 255만원, 비제조업의 판매/서비스직은 159만원으로 나타남

(단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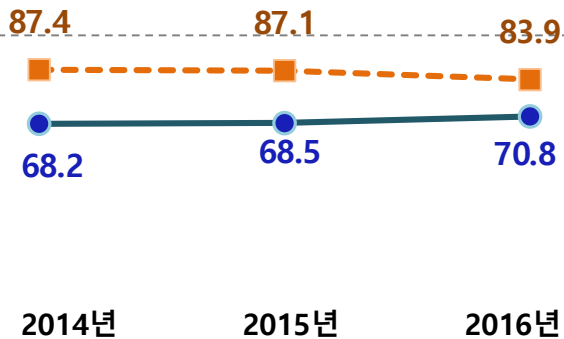
6. 경기체감지수 - 전반적인 업황 지수

- 제조업의 전년대비 현재 업황지수는 100기준으로 볼 때 70.8로 다소 악화된 상황이며, 미래 전망치는 83.9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향후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음
- 비제조업의 경우 제조업과 상황이 비슷하지만 더욱 나쁜 상황으로 향후 전망도 더욱 악화로 예상하고 있음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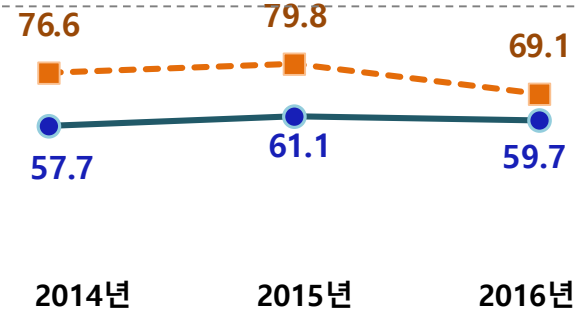
● 현재 ■ 전망

기준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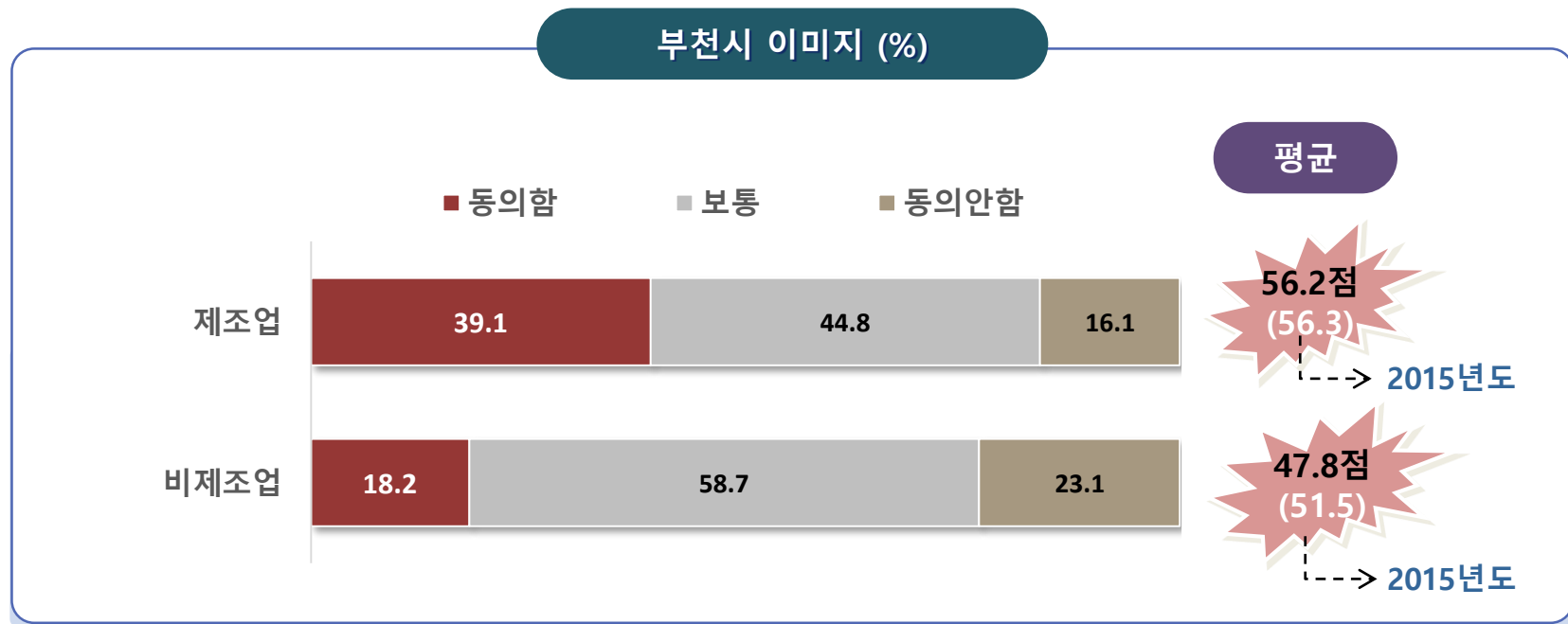
비제조업

● 현재 ■ 전망



7. 부천의 경쟁력 - 부천의 이미지

-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부천에 대한 평가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긍정평가 비율이 늘었으나, 비제조업의 긍정평가는 2015년 24.6%에 비해 6.4%p감소한 18.2%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긍정비율이 39.1% 부정비율이 16.1%, 100점 기준 56.2점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긍정비율이 18.2%, 부정비율이 23.1%로 100점 기준 47.8점으로 나타남



Chapter 3. 결론 및 제언



1. 조사 결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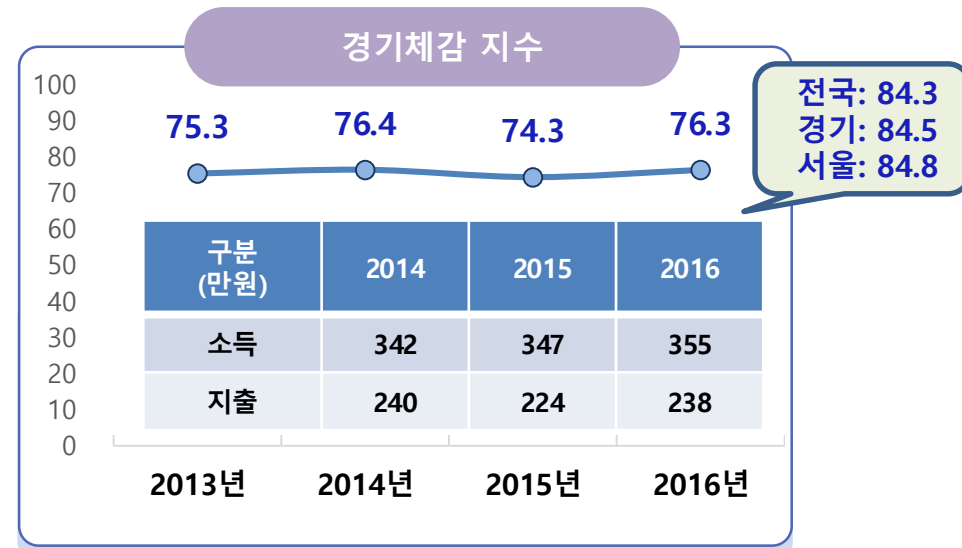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경제불안심리

- 부천 가구의 소득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지만, 경기체감지수는 평균을 하회해 경제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 특히 가정 경기보다 국가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드러나고 있음
경기체감지수는 전국적으로도 침체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국, 경기(전체), 서울 대비 부천은 더 낮은 상황임

- 이러한 불안심리로 인해, 의식주 항목의 소비지출은 늘었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지출 비중이 감소하여, 꼭 확대할 수 밖에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 소비지출 지수 또한 대부분 항목에서 '동일' 기준을 밑돌아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경제불안심리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천시 및 관련 기관 등에서는 경제불안심리를 경계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기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조사 결론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활성화 정책 홍보 강화 필요!

- 부천시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기준, 2014년 3.17점에서 2016년 3.07점으로 소폭 하락함
-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상동권역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타권역과 차이를 보여,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부천시는 과거부터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들여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그러나 주거환경 만족도나 소득/지출 수준 등 경제상황 전반적인 부분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을 보아 부천시의 추진 사업에 대한 부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주거 전반 만족도 및 소득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 홍보 강화, 콘텐츠 강화(문화광장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점)

기관 \ 년도	2014년	2016년
전체	3.10	3.07
도당권역	3.11	2.82
원종권역	2.82	2.98
중동권역	3.42	3.27
상동권역	3.34	3.27
송내권역	3.31	3.00
심곡권역	2.90	2.96
소사권역	2.59	3.07
역곡권역	3.29	3.19

1. 조사 결론



점점 더 열악해지는 소규모 사업장 운영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실적, 판매실적, 매출액 성장률 등 경영지표 전반에 걸쳐 영세기업과 50인 이상 규모 기업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 50인 이상의 사업체보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됨
- 비제조업의 경우 향후 1~2년 이내 업종 전환 또는 폐업 의향이 있는 사업장 비율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나, 비제조업의 경기 체감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영세기업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차원의 지원책(유동인구 분석, 빅데이터 분석, 재창업 교육 등)이 요구됨

특성 규모	제조업 매출액 (만원)	업종 전환 폐업 의향 (%)
평균	136,060	2.6
1~4인	24,122	3.4
5~19인	134,229	1.6
20~49인	588,664	0.0
50~99인	1,912,602	2.6
100인 이상	7,979,956	0.0

특성 규모	비제조업 매출액 (만원)	업종 전환 폐업 의향 (%)
평균	73,936	8.8
1인 자영업	7,225	9.8
2~4인	25,464	10.0
5~9인	120,755	5.2
10~29인	342,436	2.0
30~49인	1,048,908	0.0
50인 이상	2,657,199	0.5

1. 조사 결론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취업연계 방법 모색 필요!

- 부천시민들은 부천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부천시에 바라는 사항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응답이 매년 높게 나타나, 청년층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 차원에서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취업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함

청년일자리 창출	71.0%
사회적 일자리 확대	66.7%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50.4%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	36.1%
취업매개체 활성화 지원	24.3%
창업교육 지원	15.1%

필요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
연계

취업연계 프로그램

중·장기적 취업연계 프로그램 모색 필요

청년취업인턴제 등
단기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모색

중소기업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일학습 병행제 등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연계

일학습 병행제 :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특성화고 전문대 등에서 이론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 훈련 제도

감사합니다